

지역메아리

무진장소방서, 수난안전시설 점검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2019년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관리 강화 대책을 전했다.

이는, 사상 최대 폭염이 찾아온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도 고온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고 폭염일수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관리 강화에 나섰다.

또한, 인명구조함 설치·관리주체가 상이해 점검관리 공백 발생 및 잠금장치의 비밀번호 제각각·공용 미흡으로 도민의 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강화 목적이 있다.

현재, 무진장소방서 관내에는 진안군 11개소, 무주군 10개소, 장수군 6개소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수난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점검을 실시해, 구명조끼·구명로프·구명환·구조봉 등을 파악하고 인명구조함 잠금장치 설치여부, 비밀번호 확인을 하였다.

향후, 점검결과에 취합에 따라 미비된 수난안전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개선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진안군의회는(의장 신갑수)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한다.

신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 군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한층 더 기여하는 정례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무더위나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옥주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발작물에 사용되는 멸칭비닐 사용 현황을 언급하며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영세농가에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멸칭 비닐 지원 보조사업 실시를 제안했다. 또한 최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생분해 멸칭비닐 상용화 사례를 들며 농촌 환경보전 및 농업인력 교련과 대책으로 생분해 비닐 도입 시 구입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진안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진안군, 귀농·귀촌 유치활동 '온 힘'

13~14일 서울서 지대 수도권 도시민 귀농귀촌 상담·교육

진안군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진안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13일부터 2일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수도권 지역 귀농 및 귀촌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활동은 지난 3월 진행된 1차 도시민 상담·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13일 첫날 오전에는 도시민과 1:1 상담 상담을 진행하고, 오후부터는 진안군 귀농귀촌 정책, 상담에서 정착까지, 귀산촌 생존기, 귀농귀촌의 가치 등 다양한 주제로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일차에는 먼저 정착한 선배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도시민상담 및 교육 포럼'을 통해 진안을 공급해 하는 도시민들에게 진안을 알리는 계기와 공급증을 해소 시켜주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일간의 교육에 모두 참여할 경우 8시간의 교육 이수시간도 부여된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유치활동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단순 정보제공, 지역 홍보가 아닌 맞춤형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진안을 알리고 한 차원 높은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무더위 쉼터 지정 경로당 점검

무주군은 관내 6개 읍면 경로당 중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경로당 4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 쉼터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호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청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2일까지 무주를 8곳과 적상면 4곳, 안성면 11곳 경로당의 상시 개방 여부와 냉방기 가동 여부, 냉방기 상태 등을 살폈다. 13일에는 부남면 3곳, 14일에는 무풍면 3곳과 설천면 14곳에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백승훈 팀장은 "일제감치 더위가 시작될 데다 일부 경로당은 농번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며 "건강을 위한 적정온도 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농가 레스토랑 큰 관심

개원 앞두고 무풍송지 샹그릴라 레스토랑 시식회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 셰프, 스파게티 등 선보여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과 한식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무풍송지 샹그릴라 레스토랑이 6월 말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식회를 가졌다.

무풍송지마을이 주최하고 국제한식문화재단이 후원한 가운데 지난 12일 열린 시식회에는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 민계홍 교장과 무풍송지마을 김원수 위원장(무풍송지 영농조합법인 대표), 건강대 강병익 교수, 중부대 유선균 교수, 무주군의회 이광한 부의장과 문은영 의원을 비롯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풍송지 샹그릴라 레스토랑 한식전문 셰프 2명이 직접 조리한 한방재지보쌈과 계육떡볶이, 닭가슴살, 김치찌개, 차돌된장찌개, 파전, 스파게티(까르보나라, 칼라브리제), 돼지안심스테이크 등이 메뉴로 선보여 관심을 얻었다.

시식을 위해 참석한 주민 이 모 씨(56세)는 "메뉴도 맛도 농가 레스토랑 분위기와 잘 어울려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며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우리 마을이 무주와 전북을 대표하는 체험관광 1번지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백철 셰프는 "승지마을을 비롯한 무주지역에서 나는 싱싱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들을 주재료로 농가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라며 "샹그릴라를 손님이 즐기실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맛 집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시식단 평가를 토대로 메뉴 선정과 맛,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풍송지 샹그릴라 레스토랑은 전북 농촌의 체험관광 기반을 다지고 수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지상 1층 체험관 104.12㎡, 지상 2층 196.23㎡, 지상 3층 197.64㎡) 한 곳으로, 무풍송지 영농조합법인이 청년 셰프 농촌관광마을 창업 시범사업(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한식조리학교를 수료한 전문 셰프를 지원(2019.3.~12.)받아

운영하게 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관광팀 김오수 팀장은 "무풍송지 샹그릴라 레스토랑은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로부터 청년 셰프를 최초 파견 받아 창업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라며 "앞으로 운영주체가 될 마을 분들이 전문 셰프들에게 무주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은 물론, 조리기술과 운영역량을 모두 전수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을로 가는 축제 등을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 무풍송지마을이 샹그릴라 레스토랑을 통해 관광객 유인이 활발해지고 농촌체험관광지로서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풍송지 영농조합법인 김원수 대표의 "마을이 성장할 수 있는 제때된 동력을 얻었다"라며 "물 좋고 공기 좋은 무풍을 비롯한 우리 군에서 나는 농산물로 만드는 샹그릴라의 요리를 기대해주시고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농·산촌체험이 기다리고 있는 무풍송지 마을에도 꼭 한 번 찾아와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중점관리대상 사업 54건 선정

명품홍삼 집적화단지·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진안군이 최근 2019년도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54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 및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올해 공개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군민 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이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4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으

로 진안홍삼축제 중장기계획 수립 등 4건과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대량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등 5건이 선정됐다.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에 선정된 54개 사업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군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실명제 발전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마을활동강사 양성프로그램 '문화너름새 제2기 개강식'

장수군은 지난 11일 누리파크 홍보관에서 주민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활동강사 양성프로그램 '문화너름새 제2기 개강식'을 진행했다.

문화너름새 제2기 '장수' 맞은 사람들은 장수군 주최, (사)장수지역활력센터 주관의 마을음식 문화 복원·확장을 위한 마을 활동 강사 양성 과정으로 음식에 관심 있는 20~60대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마을로 직접 들어가 마을밥상을 복원·기록하는 활동 및 마을 밥상치킴으로 장수 맛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